



# ASEAN 경제공동체 출범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sup>1)</sup>

이아름 연구원

- A.M. Best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sup>2)</sup>의 금융서비스 부문 통합을 위한 노력이 신사업을 유도하고 잠재적인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개선시켜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sup>3)</sup>
- ASEAN은 단일 시장 및 생산기반 형성, 경쟁력을 갖춘 경제권 구축, 균등한 경제발전, 세계경제와의 통합 등 4대 목표를 바탕으로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sup>4)</sup>를 2015년 말에 출범시킬 예정임.<sup>5)</sup>
  - AEC는 시장 및 생산기반을 통합하여 국가 간 경제적 장벽을 없애고,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법제 및 기관 마련, 소비자보호조정위원회(ACCCP)<sup>6)</sup> 설립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경제권을 갖추고자 함.
  - 또한, AEC는 각국의 중소기업들이 성장하여 각국내의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비교적 더욱 발전한 ASEAN 6개국<sup>7)</sup> 및 CLMV<sup>8)</sup>과의 경제적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세계경제로 통합되고자 함.

---

1) A.M. Best(2015. 4), "Capitalizing on the Benefit and Opportunity in an ASEAN Open Market"을 발췌, 요약함.  
2)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구성됨.  
3) A.M. Best는 2014년 "Market Prospects Improve for Insurers Ahead of ASEAN Integration"이라는 제목으로 ASEAN 통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 보고서의 후속으로 이번 보고서가 발간됨.  
4) ASEAN 경제공동체는 정치안보공동체(APSC,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사회문화공동체(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공동체를 구성함.  
5) 아시아개발은행(ADB)연구소는 아세안이 2015년 말 AEC 출범에 맞추어 구조개혁 단행을 성공한다면 2030년에는 EU와 유사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6) 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Consumer Protection.  
7)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8)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AEC의 목표 일환으로 ASEAN 국가 간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 보험분야를 비롯한 역내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 2013년 기준 ASEAN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1,22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 중 유럽이 22.0%, 일본이 18.7%, ASEAN 국가들이 17.4%를 차지함.
  -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연평균 25.0%를 차지하는 반면, 역외 외국인 직접투자는 연평균 13.0%를 차지함.
- 2013년 기준 ASEAN 국가의 CLMV에 대한 투자금액은 36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CLMV에 대한 전 세계의 투자금액에서 27.0%를 차지함.
- 보험분야 투자의 경우, 2014년 태국의 주요 손해보험회사인 Viriyah Insurance가 ASEAN 자동차 보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현지 파트너와 합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AEC 청사진에 따르면 ASEAN의 보험분야 자유화가 201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계획된 반면,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만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중개 등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함.

-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은 보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소유권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발전된 국가일수록 더욱 개방됨.
  -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금액을 늘렸으나,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경우 아직도 외국인 진출에 대한 제약이 많음.

■ AEC 출범으로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고용 등 역내 개방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보험산업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받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것임.

- 긍정적인 영향의 경우 정비된 소비자보호 규제 하에 보험수요자에게 가격경쟁으로 저렴하고 다양한 보험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보험회사는 역내 인재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및 보상금 청구 센터 등 경영 조직을 여러 국가에 설치할 수 있을 것임.
- 반면, 부정적인 영향의 경우 거대 외국 보험회사 출현으로 인해 다양성이 상실될 수 있고, 역내 자본 이동과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잠재적인 자산 버블 등 무역 및 공급망과 관련된 거시 경제적 이슈가 발생할 것임.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안정된 역내 무역과 투자로 인해 경쟁력 있는 경제권을 갖추어서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이 개선되어 보험산업을 비롯하여 ASEAN 국가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

(A.M. Best 등)